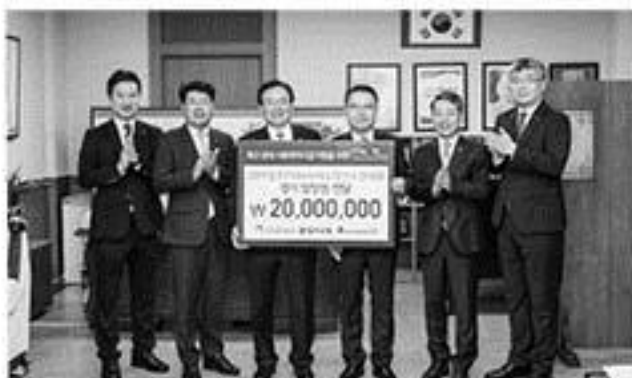


〈제 537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사회취약계층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9일 2019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567매(2천만원 상당)을 구매해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지정기탁 했다.

이날 전달식은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세계

인의 축제인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민과 국내외 관람객이 하나 되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아차 광주공장

◆ 'EV 트렌드 코리아 2019' 참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9'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국내EV 시장의 강자 쏘울 부스터를 직접 체험하고 시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 등 미래 모빌

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돼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 '희망의 공부방' 15호점 완공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Green 희망의 공부방' 15호점 완공식을 가졌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2016년 8월부터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도배, 장판을 비롯해 PC, 책장, 책상 등 학습교구와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학업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보해양조

◆ 광주보우회 격려금 쾌척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전직 임직원 모임인 광주보우회는 지난 2일 보해양조 광주지점을 찾아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전직 임직원들이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회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격려금은 직원들의 복지여건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II. 광주경충 소식

〈스마트 보안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2일 광주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에서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 SK텔레콤 김현국 서부마케팅본부장, ADT캡스 임철성 호남본부장, 넥스톰이엔지 김영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보안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SKT의 사물인터넷(IoT) 센서에 ADT캡스의 보안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보안 컨설팅을 회원사에 제공해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난, 화재, 범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 근로자의 날 유공 국무총리표창〉



광주경영자총협회 이병근 상임이사는 지난 7일 광주고용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사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본회 이병근 상임이사는 노사민정 공동 학습의 장인 금요조찬포럼을 28년간 기획·진행하면서 상생의 노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사무국 일지 (4.29 ~ 5.3)

4.2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 新광주형 청년공제 협조 회의 참석 	5.2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보안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회의 참석
4.30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고용전략회의 진행 ● 노정협의회 회의 참석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담당자 교육 참석 	5.3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40회 금요조찬포럼 ●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회의 참석

〈1440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3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노태권 휴먼보이스 대표를 초청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란 주제로 제144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강사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난독증환자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부터 막노동생활을 하다가 마흔 셋의 나이에 시작한 글자공부를 아내에게 카드놀이로 배우기 시작했다. 한글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 11,571자 천,찬,춘,촌 등 굉장히 헷갈렸던 비슷한 글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한번의 훈련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천만 번 했을 때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길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노트와 시험지를 코팅해준 아내의 정성, 공사장을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공부를하고, 6년동안 아내가 써준 글자 수가 2,000만자.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 공사장의 시멘트 푸대를 연습장으로 활용하여 글자쓰기를 계속했다. 주유소에서 일할 때 영어듣기를 위해 손수 제작한 헤드폰, 50대 중졸 막노동꾼이 수능모의고사를 보아 7번의 만점을 받았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아내의 사랑과 헌신이 나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10년의 공부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중졸이 된 두 아들에게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

“중졸인 두 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은 아버지” 공부가 아니라 삶을 가르쳤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안했던 아들들을 데리고 8,000km이상을 걸었으며, 피나는 노력으로 두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서울대에 합격시켰다. 이유가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면 시간, 장소, 상황.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恨)을 흥(興)으로 풀어낸 것이다.



1. 노사 동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 29 4차 「본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을 추진했으나 무산

○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반대하는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으로 2차(3. 7)와 3차(3. 11) 「본위원회」가 무산됨에 따라, 위원 참석을 요하지 않는 서면의결 추진

- 그러나 4차 「본위원회」도 근로자위원 3명과 공익위원 2명이 서면제출을 거부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종료

※ 의결거부 근로자위원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의결거부 공익위원 :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 「본위원회」가 무산됨에 따라 '연금개혁특위'는 운영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4. 29 자동 종료

[참고 1] 4차 본위원회(4. 29) 상정 안건(심의 불발)

구분	주요 내용
합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안) ▲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설치(안) ▲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
경사노위 운영 및 연금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 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논의시한 연장(안)

○ 경사노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문성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전들이 3차례에 걸쳐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
- 한국노총은 4. 30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 불참한 근로자위원들과 경사 노위 사무국의 미숙한 회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경사노위의 재구성, 의결구조와 운영 등 재설계, 경사노위 사무국의 쇄신 방안을 제안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법안 심의 지연

-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노동법안 심의는 당분간 어려울것으로 전망
 -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4. 29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정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4. 30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5. 7) 동안 노동 관련 법안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표명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임위 개최 등 의사일정 조율이 어려울것으로 전망
 - ※ 자유한국당은 5. 2 소속 의원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한 가운데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

■ 양 노총은 근로자의 날(5. 1)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 해결 촉구

- 한국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을 슬로건으로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제 개편반대, ▲경사노위 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강조

○ 민주노총은 서울시청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제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폐기,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2019 노동절대회」 개최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조하며, 對정부 투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

[참고 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조직해 노동의 권리를쟁취해 나갈 것임.
- ▲100만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시킬 것임.
-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해 나갈 것임.
- ▲재벌중심의 산업정책을 개혁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임.

○ 한편, 대통령은 5. 1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계에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서울시는 특수형태종사자 노조 설립 지원 계획

○ 서울시는 4. 30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통해 특수형태종사자,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등을 발표

- 서울시는 4. 11에도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서울지역 퀵서비스 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 서울시는 '18. 11. 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참고 3]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노조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종사자, 비정규직 노조 설립 지원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지원
근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종합복지센터' 2021년까지 25곳 설립 ▲ 서울 시내 '노동자쉼터' 5곳으로 증설 ▲ 무료 노무 컨설팅 '마을노무사' 150명으로 확대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작업중지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7월까지) ▲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 앞으로 지자체가 특수형태종사자의 노조설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2. 판례 동향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경우, 아직 교섭 진행 중인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 1,700명을 고용해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년 1월 이 사건 회사 내에 산별노조 산하 A지부 및 기업별 노조인 B노조가 각각 설립됨.
- A지부와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B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A지부와 B노조에 대해 개별 교섭을 각각 통보함.
- 양 노조와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교섭을 진행하였고, B노조와 회사는 2014. 12. 3.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를 작성함.
 - 반면 A지부는 2015년 1월 교섭 결렬을 통보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함.
- B노조는 위 (잠정)합의서 내용과 함께 12. 17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실제로 회사와 B노조는 12. 17 (잠정)합의서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회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폭 늘어난 B노조 조합원 인원을 확정해 같은 달 격려금을 일괄 지급함.
 - ※ A지부 소속 조합원 일부는 B노조 단체협약 체결일 전날 및 당일 A지부를 탈퇴함.
- 이에 A지부는 이 사건 회사가 B노조 조합원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A지부 및 B노조와의 개별 교섭 과정에서 B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A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큼.
- 회사는 2015. 12. 3. B노조와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단체협약을 같은 달 17. 체결하기로 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B노조가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B노조는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음.
- 회사는 B노조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B노조가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A지부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회사가 B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A지부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3. 시사점

-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진행한 개별 교섭의 결과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금품(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금품 지급의 배경이나 시기,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함. 끝.